



2014 PLAN KOREA Annual Report

플랜코리아 2014 연간보고서



Plan

CONTENTS

2014 PLAN KOREA ANNUAL REPORT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03 인사말04 숫자로 보는 플랜 201406 One Plan, One Goal08 About Plan10 아동결연 프로그램별 활동
 영유아 보호 및 개발 / 재난위기대응 / 교육 / 아동참여
 생계지원 / 식수 및 위생 / 아동보호 / 성 건강과 모성보호18 플랜 청소년 대사들의 이야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20 Because I am a Girl 캠페인22 플랜코리아 2014 활동 소개
 후원기업 및 단체 / 특별행사 / 캠페인
 후원자 참여 / 홍보대사30 플랜코리아 프로젝트 사업보고32 재정보고34 플랜인터내셔널의 2014년 |
|--|--|

플랜코리아 후원자 여러분들께

유난히도 아팠던 2014년이 지나고 희망의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비롯해 대한민국을 슬픔에 빠뜨렸던 잊지 말아야 할 사건,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자연재해와 분쟁, 서아프리카 에볼라 사태 등 참 많은 어려움과 시련의 한 해였습니다. 아직도 회복 중에 있는 상처와 시련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 희망을 나누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2014년 후원자님의 관심과 사랑은 많은 이들의 삶을 일으키고 변화시켰습니다.

몇 줄 글로 표현하기엔 벽찬 그 사랑은 모두의 가슴에 소중함으로 간직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후원자 여러분과 감동과 희망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플랜코리아의 미래를 기대합니다. 2015년에도 후원자님의 사랑과 응원에 보답해 더욱 최선을 다해 활동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변화의 이야기를 후원자님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후원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5년에도 계속될 플랜코리아의 다양한 캠페인과 사업에 후원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 그리고 조언 부탁 드립니다.

플랜코리아 회장 노영찬

플랜코리아 대표이사 이상주

숫자로 보는 플랜 2014



플랜인터내셔널

81,500,000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164,900,000명의 지역 주민들이 플랜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플랜은 **3,878**개의 국제기구 및 지역정부,
1,110개의 NGO, **27,777**개의 지역 커뮤니티 그룹과 함께 했습니다.

8,408명의 **플랜직원**들이 **50**개의 국가,
86,676개의 **커뮤니티**에서 활동했습니다.

교육분야 **104,231**명, 의료·보건분야 **289,437**명,
아동보호분야 **272,755**명, 직업교육 및 창업기술 분야 **135,762**명을
포함한 **859,450**명의 전문가들과 봉사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했습니다.

플랜코리아

* 아동결연 후원

플랜코리아를 통해
후원 받은 어린이

36,553명



* 프로젝트 후원



교육분야

ECCD센터
8개

초등학교
1개

세이프 스쿨
5개

직업학교
2개

직업교육을 받은 청소년
584명



위생분야

식수 시설
26개

화장실
47개

식수 및 위생 교육을 받은
마을 주민들
5,177명

플랜코리아를 거쳐간 편지

18,684통



플랜코리아에 도움을 주신 자원봉사자

197 명 22,458시간



ONE PLAN ONE GOAL

Rights and opportunities for every child

모든 어린이들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의 플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Vision

플랜의 비전은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어린이들이 가진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One Plan

전 세계 플랜은
더욱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활동합니다.

One Goal

플랜은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차별받거나 소외된 어린이들을 포함해 가능한 많은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활동합니다.

차별 없는 세상

플랜은 모든 어린이들에게 동등한 기회가 제공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 71개 플랜 사무소에서 양성 평등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양성 평등 전략 및 검토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 플랜의 보고서 ‘울타리 바깥에서(Outside the circle)’는 서아프리카 내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의 교육과 보호에 대한 접근성을, 플랜의 후원아동을 대상으로 조사한 ‘우리를 안다주세요(Include Us!)’는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의 교육과 보건에 대한 접근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차별과의 싸움: 어린이들이 성별, 장애, 인종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전통 관습에 의해 행해지는 차별에서 벗어나 여자아이들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토고에서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도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또한, 방글라데시에서는 포용적 교육 프로젝트를 시행해 모든 어린이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활동합니다.

플랜의 프로그램은 국제적인 정책과 기준에 맞추어 진행되며 어린이들에게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지 평가합니다.

- 국제기기술자문단이 구성되어 최고의 사례를 바탕으로 주제별 전략 및 국제공통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문단은 교육, 아동보호, 양성 평등, 청년 고용, 저축 그룹, 시민권리, 거버넌스(공공경영) 등의 분야에서 활동합니다.
- 플랜 아카데미에서는 어린이 중심 지역개발 활동 분야의 직원 500명을 교육했으며, 더욱 전문적인 활동을 위해 한층 강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프로그램의 수준과 관리가 지속적이고 조직 전체를 포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관리 정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성공적인 프로그램의 확대 시행

지역에서, 세계에서 성공적인 프로젝트들을 선별한 후, 지역적 특색에 맞춰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 플랜의 저축 그룹 프로그램에는 전 세계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여성, 청소년들과 함께 저축 그룹의 진행 방법을 함께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 18+ 프로그램은 말라위, 모잠비크, 잠비아, 짐바브웨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혼 방지 프로그램입니다. 플랜방글라데시의 ‘조혼방지 프로젝트’나 플랜아이집트의 ‘조혼에 대한 도전’ 등 성공적인 프로젝트 사례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케냐, 시에라리온, 파키스탄에서는 정부, 유엔 파트너 및 민간 부문과 긴밀히 협력해 모바일 기술을 이용하는 디지털 출생등록(Digital Birth Registration)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11개 국가에서도 디지털 출생등록의 적절성을 평가 후 시행을 준비 중입니다.

어린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플랜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의사 결정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 플랜의 지속적인 권리옹호활동 결과 2013년 가을,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서 조혼과 관련된 결의안이 최초로 채택되었습니다.
- 지속적인 권리옹호활동을 통해 아동권리협약의 새로운 선택의정서가 채택되어 어린이들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 당했을 때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플랜은 출생등록에 관한 어린이들의 권리와 필요성을 보장하는 전 세계적인 권리옹호활동에 앞장서왔습니다. 출생등록은 시민으로 등록되는 필수 과정이며, 정부와 유엔 기구의 중요한 통계 자료로도 인식되고 있습니다.

플랜의 영향력 확대



Plan About Plan

플랜은 75년 이상 어린이를 위해, 어린이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플랜은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의 개발도상국 50곳에서 수백만 어린이들의 권리신장과 더 나은 기회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21개 후원국에서는 플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알리고 플랜의 활동에 함께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플랜에서는 가장 취약한 어린이들이 마땅히 자신의 권리인 교육과 보호를 받고, 모든 프로그램의 진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교, 정치, 정부의 개입에서 자유로운 독립 기관으로 지역사회, 지방 및 정부 당국, 그리고 시민사회 등과 연합하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플랜코리아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오래 전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1953 양친회 (Foster Parents Plan, 현 플랜코리아의 전신) 설립

- 해외로부터 후원금 및 구호물품 지급을 통한 활동 시작
- 6.25 전쟁의 폐허 속 65만 여명의 어린이 지원
- 아동복지, 가정복지, 의료지원 등 긴급구호 활동



1979 양친회 철수
- 경제 성장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 마련

1996 플랜코리아 공식 출범

- 한국의 OECD 가입

1997 개발도상국 6개국 후원 시작

1998 후원대상국 12개국으로 확대

2003 후원대상국 30개국으로 확대

2007 후원대상국 38개국으로 확대

2008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의 지원으로 세네갈 의료보건시스템 역량강화 및 아동건강증진사업 착수

2009 후원국 21개국, 후원대상국 48개국으로 확대

2010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 모자 에이즈 수직감염 방지 사업 착수

플랜코리아 후원자여행 'The 좋은여행' 시작



2013 플랜코리아 60주년

2014 후원자 어워드 개최

플랜이 만들고 싶은 세상

플랜은 권리 실현과 가난 극복 사이에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인생에서의 순조로운 첫 출발은 단지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플랜의 중심에는 항상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플랜은 모든 어린이들이 능동적인 시민이 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어린이 중심 지역개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 포용, 차별 금지와 어린이 참여에 중심을 둔 이 접근법을 통해 어린이들이 속한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 계획과 발전 평가, 재난 대비 등에 있어 어린이들이 참여해 우선순위를 정립할 수 있습니다.

플랜은 어린이들의 자신감과 기량을 향상시킴으로써, 어린이들이 살고 싶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플랜의 핵심 요소

-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사는 지역사회 속에서 함께 일합니다.
- 지역사회와 정부에서 아동권리협약과 다른 국제 협정에 총족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들과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여 단체의 능력을 강화하고 프로그램을 수행합니다.
-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과 협력합니다.
- 아동권리와 빈곤퇴치를 위한 응호활동과 캠페인을 펼칩니다.



플랜의 아동결연 프로그램



영유아 보호 및 개발



재난위기대응



교육



아동참여



생계지원



식수 및 위생



아동보호



성 건강과 모성보호

영유아 보호 및 개발

Early Childhood Care and Development



289,437명의
보건전문가와 자원봉사자들이 교육을 받았고,
10,758개의 보건시설 및 영유아
보호 센터를 건축 및 개선하였습니다.

플랜의 목표: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권리 및 초기 학습 권리를 인식하는 것

플랜은 신생아들과 산모의 사망률 감소, 유아기의 특정 질병 예방, 영유아 생존율 증가, 영유아의 성장 발달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영양섭취, 유아기 발달 및 영유아 교육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부모와 어린이들이 양질의 기본 의료와 사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활동합니다.

스리랑카 | 영유아 영양 증진 활동

플랜스리랑카는 다섯 살 미만 어린이들 중 영양결핍 고위험군 어린이들의 문제를 다루는 ‘지역 기반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지역주민들 특히 여성들이 주도하여 어린이들의 초기 발달 및 영양에 대해 조언을 합니다. 이들은 공동 육아, 어린이집, 행복한 어린이 메모장 작성 등의 활동을 통해 영유아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모나라갈라 지방에 사는 세 아이의 어머니 칸차나말라(30세)는 “아이 체중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체중을 늘리기 위한 활동도 시작했고요. 아이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주위 환경을 느낄 수 있도록 밖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꽃과 나무를 보여주고, 새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죠. 우리는 이걸 오감 식사라고 부릅니다.”라고 말합니다.

지역사회 모임과 보건 당국 간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 최초 112개 마을에서 운영되던 건강 증진 프로그램이 721개 마을로 확대되었으며, 체중 미달 어린이 비율이 45%에서 25%까지 떨어졌습니다. 더불어 약 1천 명의 아버지들이 어린이들의 건강 및 행복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등 아버지들의 참여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초창기 멤버였던 어머니들은, 프로그램에 새로 참여하는 전국 각지 어머니들에게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유아 영양 증진 국가 계획 수립을 돋기 위해 정부로부터 초청되기도 하였습니다.

짐바브웨 | 교육을 통한 더 나은 육아

짐바브웨는 산모 및 유아 사망률이 높은 국가입니다. 유엔의 발표에 의하면, 2012년 산모 10만 명당 960명, 다섯 살 미만 어린이는 1천 명당 84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에 플랜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여성과 어린

이 건강(WATCH) 프로젝트’를 운영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사회 돌봄 모임을 조직하여 산모들이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돌봄 모임은 10명에서 15명 정도의 부모들로 구성되어 프로젝트 담당 직원과 마을 의료 종사자들, 건강 교육 봉사자들과 격주로 만나 모자보건에 관해 상담을 받습니다. HIV/AIDS, 말라리아, 결핵, 예방접종과 위생시설의 이점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외우기 쉽게 노래로 만들어 부르는 활동도 합니다. 지금까지 2,272개의 돌봄 모임이 구성되고, 2만 3천 명의 부모들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모자보건에 대한 긍정적인 행동을 유도할 뿐 아니라, 외곽에 사는 부모들에게도 건강 메시지를 전달해 십만 가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육아에 관한 저의 무지로 인해 여덟 명의 아이 중에 다섯 명을 잃었어요. 나머지 세 아이가 생존할 수 있었던 건 돌봄 모임의 교육 덕분이었습니다. 이제는 제 자신의 건강과 아이들의 행복한 삶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었어요.” -엘리자베스 마폰데라, 돌봄 모임 멤버

2015년 플랜의 활동

- 1 생존 및 성장에 초점을 두고, 모자보건 증진 활동을 포함한 삶을 건강하게 시작할 권리 to 지지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과 연계한 보건과 영유아 보호 및 발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양질의 정부 서비스를 위해 시민사회와 협조할 것입니다.
- 2 영유아 보호 및 개발 프로그램의 가장 효과적인 실천 모델을 발굴하여 각 지역의 현실에 맞게 적용하겠습니다.
- 3 모자 건강과 영유아 보호 및 개발에 관한 네트워크를 설치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효과적이었던 교육을 토대로 그에 대한 지식을 나누고 이를 장려할 것입니다.

2 재난위기대응

Disaster Risk Management



**44개의 재난 대응 프로그램이 시행되었고,
40개국이 긴급구호에서의
어린이 보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플랜의 목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재난 시에도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받고 도움받을 권리를 인식하는 것

재난 상황에서 어린이들은 가장 취약합니다. 가족, 친구들과 떨어지는 것은 어린이의 정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플랜의 초기 재난 대응은 식량, 식수, 어린이 보호 및 교육 등 어린이들에게 즉각적으로 필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며, 어린이 친화 공간을 만들어 이들을 보호하고 정서적인 회복을 돋웁니다. 긴급구호 활동은 물론, 지역사회가 직면하는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재난 대비 역량 강화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한 해, 유엔이 가장 긴급한 상황으로 분류한 3등급의 여러 재난에 대응해 긴급구호 활동을 펼쳤고, 3월에는 에볼라 발병 사태에 대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 최악의 태풍에 대한 대응

2013년 11월에 발생한 치명적인 태풍 하이옌으로 인해 4만 명의 플랜의 후원아동을 포함해 1,400만 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플랜은 역대 가장 큰 규모의 긴급구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필리핀에서 50년간 활동해 온 플랜은 2만 명의 이재민들에게 사전에 준비했던 구호물자를 긴급 지원했으며, 태풍이 지나간 뒤에는 구호 활동을 위해 전 세계의 플랜 직원 100명 이상을 필리핀에 배치했습니다.

플랜은 12만 명의 이재민들을 위한 식량과 식수, 임시주거천막, 위생 시설 및 이동 의료센터를 세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긴급구호 활동과 더불어, 플랜은 어린이 보호와 교육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12월부터 플랜은 장기 복구 계획의 하나로 심리치료 지원 및 활동가 훈련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영유아 보호 및 개발(ECCD)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영유아들에게 안전하고 도움이 되는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이옌이 강타한 후 3개월간 6천 명 가량의 3~4세 어린이들이 이동식 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았고, 262명의 새로운 ECCD 활동가들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남수단 | 분쟁으로 인해 난민이 된 어린이들을 위한 구호 활동

2013년 7월 남수단은 독립 2주년을 맞이했지만, 정치 불안과 식량 위기는 이 신생 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2월 종글레이 주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아웨리얼 지역으로 피난한 난민들, 특히 그중 어린이들은 심각한

식량 부족에 직면해있습니다. 플랜의 식량·영양 기구(FANU)는 유엔의 세계 식량계획(WFP), 식량농업기구(FAD)와 협력하여 2014년 1월부터 남수단의 아웨리얼 지역 262,716명에게 식량을 지원했습니다. 영양실조와 식량 위기 속에 있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플랜의 식량·영양 기구(FANU)는 영양분 약 전문기를 파견하여 영양실조 상태의 5세 미만 어린이들, 임신 중인 여성들, 수유 중인 산모들을 우선으로 지원하는 기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양 실조로 인해 매년 300만 명의 어린이들이 사망하고 있으며, 이들은 시기적절한 치료를 통해 우리가 살릴 수도 있는 생명입니다.

플랜은 또한 콜레라와 관련한 원조를 확대했습니다.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해 물을 정수할 수 있는 21,300정의 휴대용 정수 알약을 전달했고 90명의 위생 관련 활동가 훈련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분쟁으로 난민이 된 이들의 가정에 비상용 종자와 농기구들도 지원하고, 원예, 농업, 어업 교육 등 생계지원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2015년 플랜의 활동

- 1 긴급 상황 시 어린이 보호와 교육, 영유아 보호 및 개발, 청소년기 여자아이들 지원 등에 초점을 두고 재난 대비, 위험 감소 및 긴급대응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것입니다.
- 2 플랜의 '세이프 스쿨(Safe School)' 프로그램의 범위와 전문성을 확대, 심화시키고, 탄력적인 회복 프로그램을 통합시킬 것입니다.
- 3 식량 원조, 영양 공급 프로그램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 4 성명 발표, 협력, 용호활동을 통해 플랜의 영향력을 넓혀갈 것입니다.



**104,231명의
교육 전문가와 봉사자들이 연수를 받았고,
2,454개의 학교가
건설되거나 재건되었습니다.**

플랜의 목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주장하고 보장받는 것

교육은 인간의 권리 중 하나입니다. 교육은 어린이들이 사회에서 그들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가난, 성별, 장애, 지리적 고립, 혹은 언어나 문화적 장벽으로 교육의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습니다. 플랜은 모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게끔 양질의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어린이 친화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교사 연수 및 학습 자료 개선, 생업에 필요한 기술 교육 실시, 지역사회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교육에 관한 법과 공공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 및 지역 자치단체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으며, 양질의 교육을 장려하기 위한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인 캠페인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모잠비크 | 여야 교육을 위해 더 나은 기회 만들기

“모잠비크의 시골 지방에서는 긴 통학 거리, 안전에 대한 염려, 여자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에 대한 가족 내 문화적 저항의 이유로 대부분의 여자아이들이 중퇴를 합니다. 또한 1992년에 16년간에 걸친 전쟁이 끝났음에도, 모잠비크의 사회 공공시설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플랜모잠비크는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학교 건립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인함바네 주의 어린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교를 한 곳 건립하고, 열 곳 이상의 학교를 지원했습니다. 플랜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건립된 나코자 초등학교에서는 현재 618명의 어린이들이 14명의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1,000명의 나코자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플랜코리아와 함께 중등학교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9학년(14세~15세) 학생들을 위한 2개의 교실과 4개의 화장실을 마련했습니다.

아직도 많은 도전과제가 남아있습니다. 9학년으로 진학할 여자아이들은 주로 캐슈넛 농장에서 일하거나 결혼 준비로 인해 학업을 포기합니다. 이들을 9학년에 진학시키기 위한 활동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플랜은 여자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4개년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성 건강과 모성보호에 대한 수업도 진행하고 목공 수업과 같은 방과 후 직업 훈련도 실시하며 다른 기술 교육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 윌리엄 애게콤 애콰, 플랜모잠비크 프로그램 지원 담당자

방글라데시 | 소외된 어린이들을 포함한 폭넓은 교육

플랜의 교육 프로그램은 모든 어린이들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개선 프로그램' 또한 모든 어린이가 종교, 계급, 능력, 성별, 지역에 상관없이 그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확실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삽니다. 세 살에서 열 살 사이의 모든 어린이들이 100%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영유아 교육, 멘토링, 지역사회 연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접근법을 시행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275개 초등학교 7만 명의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생활을 성공적으로 해나가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플랜은 방글라데시의 초등학교 교실 미화 단체, 유니세프, 장애 어린이 국제단체인 CBM-Nossal 등과 협력하여 포괄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나지푸르 지역의 외진 마을인 하리잔 마을은 예부터 교육의 기회가 없었고, 어린이들은 세탁일을 하며 생계를 꾸리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플랜의 프로그램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의 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산제이 라는 이제 학교가 친근한 곳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고 싶어요.”

2015년 플랜의 활동

- 1 플랜은 권리에 기초한 지속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의 좋은 실례를 공유하고 발전시킬 것입니다. 성별과 관계없이 많은 어린이들이 지속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관리와 의무에 있어서 지역사회와 협력할 것입니다.
- 2 플랜은 권리에 기초한 지속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의 좋은 실례인 토고의 교내 폭력방지 프로그램, 방글라데시의 소외된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엘살바도르의 지역 기반의 저비용 유아 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발전시킬 것입니다.
- 3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들이 지속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할 것입니다.

4 아동참여

Child Participation



플랜이 활동하고 있는 국가의 74%가 출생등록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48개 국가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모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플랜의 목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시민으로서 참여하기 위한 자신들의 권리를 인식하는 것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시민으로 참여하는 어린이의 권리의 보장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나라에서 어린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에 플랜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미디어와 신문/방송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참여로 자신감과 리더십을 높이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의 권리가 잘 보장되는지 모니터링하고, 정부의 책임의식 고취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과테말라 | 지역위원회들과 함께 어린이의 권리 증진

플랜은 중앙정부와 지역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돋습니다. 빈곤과 영양실조 개선 문제를 다루고, 가정주부, 청소년 자원봉사자, 교사, 지도자들로 구성된 지방자치위원회를 조직하여 어린이 권리 문제를 제기하고 어린이 관련 법률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플랜의 프로그램은 산타 카탈리나 지역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지역 지방자치위원회는 교육과 어린이 보호 문제에 대해 당국에 이의를 제기했고, 부모와 어린이의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플랜과 과테말라의 직원 미노르 투트는 “우리가 이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는 어린이 관련 문제들은 실제로 눈에 잘 띄지 않았고 사람들은 라 티타 당국에 견의하는 절차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주민들에게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지방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어린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공공 정책과 어린이 권리 분야에서 문제들을 자각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협력하여 교육을 제공합니다. 교육 모임들은 현재, 다른 위원회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공공 정책 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제가 위원회에 참여 초대를 받았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시장님을 만나서 시장님의 잊을 법한 중요한 문제들을 확인시켜드렸어요. 이를 테면 놀이공간 같은 거 말이에요.” – 플라비오(14), 라 티타의 지방자치위원회 최연소 회원

우간다 | 학교 교사들의 잦은 결근을 방지하는 문자 메시지

우간다는 1997년에 보편적 어린이 교육을 도입했지만,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20~30%의 교사들이 평일 학교 수업에 결근했고, 교사들의 결근은 학생들의 결석에도 영향을 미쳐 학생 평균 결석률이 73%에 이르렀습니다. 플랜우간다는 글로벌 회사인 노키아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이 SMS를 통해 결근 교사를 각 지역 교육 당국에 보고함으로써 출석을 감시하는 활동을 루웨로 지역 내 다섯 개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각 학교는 휴대전화 두 대를 지급받고, 웹사이트가 회신을 수집하고, 플랜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결근 사실이 통지되면, 당국은 결근한 교사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교사들은 결근 사유를 말해야 합니다. 이 정책으로 시범 지역에서 교사 결근 문제는 거의 사라졌고, 학생 결석률도 약 20%까지 줄었습니다. 또한 학생 활동도 많아져 20개 학생회가 조직되고, 학생들의 학교 정책 참여도 증가하였습니다.

“이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도전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이 시스템을 잘못 활용할 것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책임감을 갖고 참여했고,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습니다.” – 마거릿 나첼리, 플랜우간다 직원

2015년 플랜의 활동

- 1 어린이, 부모, 교사, 지역지도자들이 양질의 교육을 위해 학교 운영에 참여하고, 교육단체와 함께 활동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 2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족, 지역 단체 및 모임과 화합하여 보호 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 3 청소년들이 정부의 새로운 목표 설정 과정을 감시하고 정부에 그 책임을 묻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포스트-2015 밀레니엄 개발 목표’의 개선을 촉구할 것입니다.
- 4 종합적이며 권리에 기초한 시민등록 및 인구통계 시스템(CRVS: Civil Registration and Vital Statistics)을 지지하고, 디지털 출생등록 시스템 활용도를 개선할 것입니다.

5 생계지원 Economic Security



**135,762명이
직업 기술 교육 및 경영 교육을 받았고,
64,280개의 지역 저축 그룹을 지원하여
1,142,720 명의 회원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플랜의 목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경제적 안정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를 깨닫고 의미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고양시키는 것

플랜은 청소년들이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자신들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산적이며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접할 수 있도록 돕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여성들을 포함해 소외된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부문과 시민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기회를 지속 가능케 하고 이러한 기회들이 어린이들의 삶에 가장 좋은 영향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페루 | 빈곤층 가정의 재정적 독립

페루가 최근 몇 년 동안 상당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외진 안데스 산맥의 지역들은 여전히 소외되고 빈곤합니다. 플랜의 '극심한 가난에서 벗어나기' 프로젝트는 극빈 가정들이 지속적인 소득 활동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이루어 내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 대상 가정은 기술, 아동 돌봄 및 건강에 대해 교육을 받습니다. 이러한 지원에는 생계활동에 필요한 기술 훈련, 지역 소액 금융 기관에 저축 계좌 개설, 수입 발생 활동의 진척 상황 모니터링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828 가정 중 80% 가정의 생계 수준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으며, 평균 30%의 가계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36세의 미혼모인 안토니아는 이 프로젝트의 도움으로 기니피그 농장을 시작했습니다. 조언에 따라 더 좋은 가격에 팔아 이윤을 얻어 재투자하며 아이들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 기니피그를 한 마리당 15솔(4,800원)에 팔고 있고, 좀 더 큰 것은 20 솔(6,500원)에 팝니다. 그래서 과일을 사서 가족을 먹일 수 있게 되었고, 칫솔도 갖게 되었지요. 또 음식을 시원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점토 냉장고도 갖게 되었어요."

서아프리카 | 청소년 저축 그룹

플랜의 '저축 그룹 프로그램'은 26개국에 100만이 넘는 회원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중 하나인, '청소년 소액금융 프로젝트'는 금융에 접근이 제한되어 있고, 열악한 사회 공공 기반 시설에 의해 저축을 하기 어려운 니제르, 세네갈, 시에라리온의 청소년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스터카드 재단과 플랜캐나다의 지원을 받아 청소년들의 저축을 장려하여 저축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금융소외 및 실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도 교육합니다.

15세에서 25세 사이의 저축 그룹 회원들은 매달 회의를 염니다. 서아프리카 3개국에 4천 개 이상의 그룹이 있고, 안전한 저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호 합의된 금리에 맞춰 작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대출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9만 명의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기존에 있는 그룹들은 금융 및 생활 기술 교육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이웃마을에서 청소년을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웃마을 족장의 집에서 25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저축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대출받은 금액과 제 소득으로 4마리의 양과 몇 마리의 가금류를 살 수 있었고, 이제 저는 아이를 위한 등록금을 낼 수 있습니다." -코이라 테구이, 니제르

2015년 플랜의 활동

- 1 지역 사회 중심의 지속적인 저축 그룹 프로그램 중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적용하겠습니다.
- 2 저축 그룹을 만들고 운영하기 위해 지역사회 회원 및 지역 기관들의 역량을 구축할 것입니다.
- 3 교육, 의료 및 재정적 안정에서 다른 기본 권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지역의 자원 동원을 위해 저축 그룹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 4 저축 그룹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금융 서비스를 접하게 하고, 경제 분야에 대한 이해, 생활 기술 및 창업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식수 및 위생

Water and Sanitation



835,207가정의 위생 시설이 개선되었고,
4,112개의 식수 시설이
설치되거나 개선되었습니다.

플랜의 목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위생적인 환경과 안전한 식수를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가 깨닫게 하는 것

플랜은 지역사회 주도 통합 위생개선(CLTS)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지역사회, 주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위생상태를 개선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개선된 위생상태의 혜택을 누리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정부, 지역사회 및 지역의 기관들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말라리아와 매개체 전염병을 퇴치하는 프로젝트를 강화하고 월경기 위생 관리와 같은 여자아이들의 건강할 권리 증진시킬 수 있는 분야까지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 농촌의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어린이들의 활동

인도네시아에서는 1억 2천 9백만 명이 기본적인 위생시설을 접하지 못합니다. 열악한 위생 환경 및 가정 위생 시설로 인해 15만 명 이상의 5세 미만 어린이들이 매년 치명적인 설사병에 걸리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주도하에 인도네시아 보건부와 함께 주민들의 위생시설 개선을 위한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지역사회 주도 통합 위생개선 프로그램'의 기본 원칙인 공공장소에서의 야외배변 중지, 비누로 손씻기, 생활 폐기물의 올바른 처리 등을 홍보하여 여러 마을의 위생상태 관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플랜이 활동하고 있는 11개 구역에 195,000개의 화장실과 170,000개의 손씻기 시설이 지역사회 자체적으로 마련되었고, 그 결과 설사병이 평균 35% 감소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은 자기가 속한 마을의 시설을 체크하고 위생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집의 문에 스티커를 붙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웁 마을에서는 3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위생관리 감독관'으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의 참여 마을 주민들의 행동을 바꾸고 있습니다.

"어린이 자원봉사자로부터 스티커를 받지 못한 집은 그 집의 위생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의 참여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 유라 웰헬미나 미나누 바한, 마을 대표

엘살바도르 | 뎅기열 퇴치에 앞장선 청년위원회

엘살바도르에서 모기를 통해 전파되는 급성 열성 질환인 뎅기열이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감염자 중 대부분은 5세에서 9세 사이의 어린이들입니다. 3월에

1,266명의 환자가 뎅기열 양성으로 진단을 받았고 2명의 환자는 뎅기열로 사망했습니다.

복지부의 지원으로 태평양 연안의 라 리베르타드 지역에서 한 청년 단체가 보건위원회를 결성했으며 한 회원은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청각 및 언어 장애가 있는 17세 파레스는 작은 물고기가 모기 유충을 잡아먹음으로써 모기 개체 수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플랜 직원들과 함께 그 지역 전역의 가정에 물고기를 나눠주기 위한 양어장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위생 교육 캠페인을 벌이고 라리베르타드 지역의 900개 가정과 함께 '뎅기열 퇴치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용 가능한 자원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환경 친화적이고 건강 친화적이며 비용이 저렴해 많은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성공과 더불어 정부에서도 프로젝트를 국가 전체로 확대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 파레스, 위원회 회원

2015년 플랜의 활동

- 1 식수 및 위생관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식량과 영양의 안정, 경제적 안전, 주민들의 참여 등과 통합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 조합과 정부-민간 파트너들과 함께 식수, 위생관리 프로그램에 협력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모색하겠습니다.
- 3 월경기 위생관리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여성 중심의 위생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 4 지역사회 주도 통합 위생개선(CLTS) 사업의 진행 이후 보건위생에 관한 행동 변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7 아동보호 Child Protection



**58,008명의 협력기관 직원들이
교육을 받았고,
214,747명의 지역 주민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플랜의 목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학대와 방치, 착취, 폭력 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인식하는 것

플랜은 어린이들에게 가해지는 학대와 방치, 착취,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동보호 시스템을 채택하여 어린이들에게 가해지는 모든 종류의 폭력을 방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단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과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 증진 및 지지를 강화하기 위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국가기관과 함께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아프리카 | 아동폭력 근절 활동

“아동폭력 근절 프로젝트”는 아동보호 옹호 및 정책 변화를 위해 어린이들과 청소년 참여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시작했습니다. 서아프리카 12개국의 플랜 수혜국에서 아동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 자문위원회를 결성해 청소년 참여에 대한 전제적인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각 위원회는 남녀 청소년 15명에서 4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위해 회의와 토론을 거쳐 홍보 전단, 연극, 춤, 대중 매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동폭력 반대 캠페인에 재미를 더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문위원회의 중요한 현안은 아동 노동과 인신매매, 여성학례, 조혼입니다. 지난 9월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서 열린 아동 폭력 포럼에서 세네갈의 아동 구걸, 베냉의 수도원에서의 아동 강제 노역, 카메룬의 가슴 다크질 학대 등 새로운 사례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아동폭력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리인인 마르타 산토스 파이스는 이 프로젝트를 모범사례라고 평했으며 이를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권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프로젝트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하다는 점입니다. 초창기에는 청소년 대표가 500명이었는데 지금은 5,600명이 넘습니다.” – 나탈리아 은켄데, 아동보호 프로그램 담당자

네팔 | 과학 기술로 아동 인신매매와 맞서 싸우기

방글라데시와 네팔, 인도의 어린이들은 국경을 넘는 인신매매에 취약합니다. 달리트, 즉 ‘최하층민’과 같이 소외된 집단의 어린이들이 더욱 그렇습니다. 플랜은 방글라데시와 네팔에서 인도로 인신매매 당한 어린이를 추적, 구조하여

본국으로의 송환을 돋는 ‘인터넷 실종 아동 경보(MCA)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과 아동보호 단체를 구성, 교육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인신매매 희생자들의 재활과 회복을 위해 쉼터를 제공하고 상담을 해주며 생활 기술 훈련을 지원합니다. 플랜은 유엔의 마약 및 범죄 담당 사무소, 인터폴, 인도 중앙 수사국과 여성 및 아동 폭력 반대 서아시아 단체 등 다양한 전문단체들과 공동대응을 펼칩니다.

“제가 만약 국경을 넘었더라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어요.”라고 말하는 14살 줄레라 크툰은 이후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엄마를 만나게 해주겠다는 한 부부에 의해 인신매매 당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종 아동 경보 프로그램 덕분에 인도와 네팔 국경에서 구조되었습니다. 그녀는 현재 네팔로 돌아와 경제 자립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2015년 플랜의 활동

- 1 ‘아동보호 프로그램을 위한 새로운 글로벌 전략(2015-2020);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는 모든 아동의 권리’라는 아동보호 프로그램을 플랜 전 사업장으로 펼쳐나가며 유관 기관들과 함께 널리 공유하겠습니다.
- 2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아동보호 활동에 관한 세계적인 모범 사례 가이드라인을 갖추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정부 차원에서 아동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에 성공한 동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의 모범 사례를 확인할 것입니다.
- 3 프로그램의 성공 사례를 전하고 실패로부터 교훈을 배우기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며, 플랜의 프로그램과 다른 기관들로부터의 자료를 이용하여 아동보호 프로그램 실천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8 성 건강과 모성보호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32개국에서 HIV/에이즈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 국가의 72%가 성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플랜의 목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성 건강 및 모성보호의 권리를 깨닫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인이 되도록 하는 것

플랜은 충분한 근거를 토대로 한 성인지 교육과 연령별 교육에 전반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HIV/에이즈 예방관리 및 치료를 포함한 청소년 친화적인 성 건강과 모성보호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또한 가족, 지역사회, 정부와 협력하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차별과 강압, 신체적 위ه로로부터 보호하며, 어린이와 청소년 스스로 성 건강과 모성보호를 위해 행동하고 권리를 옹호하도록 이들을 지지하고 북돋우는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브라질 | 청소년들의 연극을 통한 성 건강 교육

“마리양의 주도인 상 루이스에서는 청소년들이 연극으로 참여하여 친구들에게 성 건강과 모성보호에 대해 흥미롭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플랜의 ‘청소년 건강 프로그램’ 중 하나로 청소년들에게 알코올이나 마약의 해로운 사용과 같이 비전염성 질병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 등 주요 건강 문제들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스트라 제네카(Astra Zeneca)와 존스 훙킨스 블룸버그 공중보건계획 대학과의 협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4개의 주요학교에서 13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 10명으로 구성된 그룹에게 피임, 성적 학대, 임신과 낙태, 성 다양성과 건강이라는 4가지 주제에 대한 극본을 쓰도록 하였습니다. 각 그룹은 놀라운 연극 내용을 썼고 상 루이스에 있는 공용극장에서 공연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에 비해 관심을 덜 보인다는 문제가 있으나, 플랜은 성 건강에 관한 내용이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상 루이스에서만 9천 명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전달되었고 7만 명의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 니콜 캄포스, 플랜브라질의 프로그램 담당자

카메룬 | HIV/에이즈 감염으로부터 영유아 보호

카메룬의 북서지역에서는 가임기 여성의 7.2%가 HIV/에이즈 양성 감염자입니다. 임산부 관리와 유아의 HIV/에이즈 감염 예방은 여성의 사안으로 인지되어 남성들의 필수 의료 서비스 참여는 저조하였습니다. 플랜은 임산부를 돌보고 HIV/에이즈 모자 감염 예방을 위해 남성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인식 개선 활동으로 지역 여성 커뮤니티 조직과 함께 25개의 남성 클럽이 움과 메이강가 보건 지역에서 결성되었습니다. 이 클럽들은 임산부의 출산 전 건강관리와 임신한 여성을 위한 HIV 테스트를 홍보합니다. 그 결과 클럽 내의 75%의 남성들이 부인이나 애인과 동반하여 출산 전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남성 클럽의 활동을 통해 출산 전후에 남자들이 부인을 도와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체 토마스, 남성 클럽 멤버

‘HIV/에이즈 모자 감염을 막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후로 메이강가와 움 지역의 8,991명의 임산부가 HIV/에이즈 선별검사를 받았고, 그중 364명이 HIV/에이즈 양성반응을 보여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HIV/에이즈 감염 산모로부터 297명의 어린이가 HIV 감염 없이 태어났습니다.

2015년 플랜의 활동

- 1 성 건강과 모성보호에 대한 가장 적절한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어린이 중심의 활동을 하겠습니다.
- 2 전 세계의 전문가와 협의하여 플랜의 성 건강과 모성보호 프로그램의 정책을 강화시키겠습니다.
- 3 성 건강과 모성보호를 배울 수 있는 커뮤니티를 조직, 후원하며,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PLAN'S YOUNG AMBASSADORS

플랜 청소년 대사들의 이야기

플랜은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플랜과 함께 전 세계의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아동권리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국제무대에서 어린이의 권리를 지지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호소해 온 5명의 청소년 홍보대사를 소개합니다.



헬레네(Helene), 독일

청년들이 목소리를 높인다면 우리는 매우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독일의 작은 마을에서 성장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플랜을 통해 아동을 후원했습니다. 플랜에서 나오는 간행물을 읽는 걸 좋아했고, 다른 어린이들의 삶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14살 때 이모를 만나려 인도에 방문했는데 처음으로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를 목격했고, 그 지역 어린이들이 처한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플랜의 청소년 단체를 찾아갔고, 저는 현재 청소년 자문단의 일원입니다. 두 명의 선출직 청소년 이사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고, 제가 그 두 명의 이사 중 한 명입니다. 청소년 자문단에서는 플랜이 하는 일에 청소년의 시각을 반영합니다.

아프리카 연합의 청소년 대표단 중 한 명으로 지난 6월 아디스 아바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참여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아프리카 각국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 의견을 공유했고, 특히 시에라리온에서 온 크리스티아나(Christiana)의 조혼에 대한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양질의 교육은 모든 발전의 기초가 됩니다.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높인다면, 우리는 더욱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미래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우리 청소년들의 의견을 구해야 합니다.

카만다(Kamanda), 시에라리온

청소년들은 플랜의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시에라리온의 포트 로코 근처의 오직 세 가구가 사는 작은 마을에서 왔습니다. 현재 저는 플랜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회원총회와 국제청소년자문단의 일원입니다. 회원총회에서 저는 수혜국 출신의 첫 번째 청소년 대표로서 서아프리카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플랜의 중심입니다. 플랜은 청소년들을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회원총회는 청소년들이 문제를 상정하고 플랜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기회를 주는 플랫폼입니다. 청소년들은 어린 나이의 임신, 가난, 아동 폭력, 시에라리온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교사 부족 문제 등 모든 문제를 논의합니다. 또한,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상정하고, 핵심 사안에 대해 통찰력 있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올해 저는 우리의 현안들을 어른 및 동료들과 공유하기 위해 가나와 독일에 다녀왔습니다. 플랜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마이라(Mayra), 과테말라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여자아이들을 도와줄 거예요.

저는 과테말라의 알타 베라파즈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입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많은 여자아이들이 학업을 그만둡니다. 부모님들은 여자라면 당연히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저희 모두를 돌보셨습니다.

플랜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저는 조흔의 위험과 자존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플랜은 제가 가진 아이디어를 어떻게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변화를 지지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고, 저는 공부하기 위해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제 생각에 플랜이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청소년들의 능력을 계발하는 일입니다. ‘Because I am a Girl’ 캠페인은 여자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저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학위를 따고 싶은 꿈을 갖고 있습니다. 제 꿈을 이루게 된다면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여자아이들이 스스로 꿈을 위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아미나(Aminah), 우간다

지역 내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 특히 여자아이들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싶어요.

저는 캄팔라의 브웨이스에서 8명의 형제자매와 함께 자랐습니다. 2011년 처음 플랜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2014년 4월 콜롬비아 메델린에서 열린 세계 도시화 포럼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캄팔라의 여자아이들이 직면한 각종 문제들, 이를테면 폭력으로부터의 위험, 형편없는 대중교통, 열악한衛생상태, 비가 오면 어떻게 홍수가 나는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캄팔라 지역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 특히 여자아이들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싶습니다. 현재는 도시 당국에 더 나은 가로등 시설과 버스와 같은 안전한 대중교통 차량을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포럼 참석자 중에는 캄팔라 위원회의 대표들도 있었고, 이들은 여자아이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포럼 이후 신나고 행복합니다. 플랜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는 수줍고 자신감이 없는 아이였지만, 지금은 자신감 있게 여자아이들이 직면한 문제를 논의합니다. 지금은 핸드백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하고 있고, 리더십과 경영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일일 캠프에 참여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리드완(Ridwan),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다른 아이들이

출생증명서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자카르타 동쪽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출생증명서의 중요성에 대해 모르고 계셨고,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저는 제 이름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저를 사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학교를 그만두고 돈을 벌기 위해 길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체포되어 감옥에서 살아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거리를 걷다가 어느 곳에서 아이들이 읽기와 쓰기를 배우는 것을 보게 되었고, 흥미롭게 쳐다보던 저에게 한 남자분이 함께 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때부터 플랜인도네시아의 파트너인 야야산 루마 키타의 회원이 되었고, 다른 아이들과 함께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길 원했지만, 학교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실망한 나머지 제 자신이 길에서 살아야 할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야야산 루마 키타와 플랜인도네시아의 ‘출생등록 프로젝트’가 자카르타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도움을 주었고 전 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제가 출생등록이 되었다는 점이 무척 행복합니다. 제 자신을 증명할 수 있고, 국가시험을 볼 수 있으며 보건 서비스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학대로부터의 보호, 직업의 기회, 해외로 나가는 데에 대한 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의 꿈인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어린이들이 출생증명서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들을 도와서 그들이 저와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살 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Because I am a Girl 캠페인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바로 여자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지금도 개발도상국의 수많은 여자아이들은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플랜은 끊임없는 사회적 악습으로 인한 차별로부터 여자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Because I am a Girl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의 성과



2,395,000명

여자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
지지하기 위해 2,395,000명이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 2014년 9월 기준



**55,000,000명
58,000,000명**

캠페인 활동을 통해
5천 5백만 명의 남자아이들과
5천 8백만 명의 여자아이들을
지원했습니다.



65개국 568개

여자아이들의 교육권 증진을
위해 전 세계 65개국 568개의
정부의회 및 부서들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말라위와 파키스탄에서 온 플랜의 소녀 대표 4명이 58회 여성지위 위원회(CSW)에서 여자아이들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유엔 단상을 밟았습니다. 플랜은 2030년까지 모든 여자아이들과 남자아이들이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약속이 ‘포스트 밀레니엄 개발 목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세상이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자아이들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 플랜의 소녀 대표 아키사(Ackissah), 말라위

3월

유엔 무대의 플랜 대표들

2014

4월

청소년권리옹호 툴킷
“우리가 원하는 교육”



플랜은 A World At School, 글로벌교육우선구상(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의 청소년의 교육권을 위한 청소년권리옹호 가이드라인인 ‘우리가 원하는 교육 (The Education We Want)’을 발간했습니다. 이 툴킷에는 여러 아이디어와 기발한 생각들, 기술들로 가득 차 있어, 청소년들은 툴킷을 통해 교육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플랜은 또한 툴킷을 통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전 세계 6천 2백만 여자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지지하는 플랜의 캠페인 동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6월

Because I am a Girl

10일간의 행동

전 세계 청소년들이 10일간의 행동을 시작하기 위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모였습니다. 청소년들은 교육에 대한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의 20% 까지 확대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6월 16일부터 26일까지 아프리카 연합 및 A World At School과 함께 진행한 이 캠페인을 통해 브뤼셀에서 열린 교육 서약 회의에서, 정부와 후원자들은 2백 2십억 유로의 추가적인 교육 기금 기부에 서약하는 등 전 세계 교육 증진에 커다란 성과가 있었습니다.



월드컵 : 아동 성 착취와의 한판 승부

FIFA 월드컵 동안 아동 성 착취에 초점을 맞추고 'Children Back in the Game(어린이들이 경기에 돌아왔다)'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성 폭력은 브라질에서 아동 대상의 범죄 중 두 번째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플랜은 성 착취 방지에 목표를 두고, 영화, 신문, 비행기 광고 등을 통해 4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캠페인을 알렸습니다. 플랜독일의 홍보대사이자 축구 스타인 마리오 고체(Mario Götze)가 경기에서 결승 골을 넣으면서 소셜 미디어에 캠페인을 소개하였고, 이 캠페인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2014



여자아이들의 교육권을 주장해 탈레반에게 피격을 당한 후로도 계속해서 여자아이들의 교육 받을 권리 위해 싸우는 말랄라 유사프자이가 2014년 노벨평화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이 상은 교육받기 원하지만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어린이와 변화를 원하지만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어린이를 위한 것입니다. 이번 세기에 모든 어린이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금 바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10월
말랄라 유사프자이,
노벨평화상 수상

9월

조흔 결의안 통과

강제 조흔을 막기 위한 UN 결의안이 제69회 유엔총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 결의안은 여자아이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역사적인 걸음으로 평가됩니다.

플랜은 이 결의안의 통과를 환영하며, 모든 국가에서 조흔을 방지하거나 끝내기 위한 법과 정책을 제정하고 집행하며 지지하기를 촉구했습니다.



Because
**I am a
Girl**

플랜은 Because I am a Girl 캠페인을 통해 여자아이들의 교육, 생계, 보건, 아동보호 등을 지원하며, 여자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펼쳐나갈 것입니다.

With PLANKOREA



Partner 후원기업 및 단체

2014년, 더욱 풍성한 나눔을 실천한 기업들을 소개합니다.



현대자동차, 현대·코이카 드림센터 건립

현대자동차의 기술력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청소년들이 자동차 정비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대·코이카 드림센터, 인도네시아'가 개교했습니다. 아프리카 가나에 이어 두 번째로 개교하게 된 센터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자동차 정비 전문 인력을 키우는 곳입니다. 개교식을 맞이하여 현대자동차 글로벌 청년봉사단 해피무브 12기 봉사단원들이 인도네시아에 파견되어 공연을 펼치며 개교를 축하했고, 기숙사 건축 및 인근 학교 개보수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직업기술교육센터 건립

현대자동차는 르완다 청소년들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직업기술교육센터 건립을 지원했습니다. 직업기술교육센터에서는 목공, 재봉, 케이터링, 건축 기술 등 청소년들에게 지속적인 소득창출이 가능한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교실과 작업장, 강당, 화장실 건립과 교육 분야별 인턴십과 현장 방문 학습, 소규모 창업 교육, 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식수사업 및 커뮤니티 센터 지원

현대제철은 미얀마의 만달레이 지역에 식수사업을 기반으로 한 따웅비라이 지역 개발 사업을 지원합니다. 심각한 가뭄 지역 중 하나인 만달레이 지역에 식수를 보급하는 한편, 따웅비라이를 중심으로 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의 생계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경제 개선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HSBC은행 여성위원회, Because I am a Girl 캠페인 지원

HSBC은행 여성위원회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플랜의 Because I am a Girl 캠페인 후원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지원금은 기본적인 사회적 혜택과 기본 권리에서 소외되어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에게 사업 운영에 관련된 교육과 여성 권리에 관련된 교육 지원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한편 여성위원회는 사내 바자회를 열고, 유치원 교구 만들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샘터봉사회, 베트남 영유아보육지원시설 건립

삼성그룹 임직원 부인 봉사회인 샘터봉사회가 베트남 영유아보육지원사업을 위한 ECCD센터 건립을 지원했습니다. 샘터봉사회의 지원을 통해 베트남 2개 마을에 건립된 영유아보육시설에서는 영유아의 올바른 영양 보급과 의료 지원, 지역의 보건 인력 및 부모와 보육교사들의 교육, 영양실조 아동 영양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플리토, 태국 소수민족 교육 지원

번역 어플리케이션 플리토는 태국 소수민족 어린이들의 교육 지원을 위해 기부페이지를 오픈했습니다. 플리토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자가 적립한 포인트를 기부하면, 태국 소수민족 모캔족 아동 교육 사업에 지원됩니다. 기부 포인트는 소수민족인 모캔족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기반시설과 환경적인 측면 등 복합적인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알파돔시티, MOU체결

국내 최대 복합사업인 알파돔시티를 운영하는 알파돔시티자산관리(주)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향후 알파돔시티자산관리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및 아동후원 활성화를 위해 상호 긴밀한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예정입니다.



삼성물산, 인도 봉사활동

삼성물산은 올해로 4년째 인도 빈민 지역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인도 델리의 우땀나가르 지역을 방문해 노후 시설 개보수 및 교실 환경미화 활동, 미니올림픽, 문화교류 활동 등을 펼치며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한편, 교내 식수 위생 시설의 교체와 개보수 지원사업을 함께 하였습니다.



롯데백화점, 베트남 롯데스쿨 지원

롯데백화점은 베트남 빈곤 지역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3호 롯데스쿨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베트남 타이응웬 주 빈곤한 산간마을에 초등학교와 유치원 건물을 신축하고, 식수 위생시설 및 안전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롯데백화점 전 지점의 협력사원을 대상으로 해외아동결연 캠페인을 펼치며 아동결연 문화 확산을 지원했습니다.



마세다린, 아동결연 후원

국내 외식프랜차이즈 전문기업 (주)마세다린과 아동결연 후원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4개국의 후원아동과 결연을 통해 장기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며, 가마로강정 전 가맹점에 플랜코리아 홍보영상 방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인도 봉사활동

삼성전자 임직원 봉사단이 인도에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인도 노이다 지역 베이드푸라 마을 내 스리 산트 비노바 공립학교에 랩탑 41대, 삼성 갤럭시탭 10대, 프린터, E-board, Sun-board, wifi 등을 기증하고, 1개의 교실을 스마트 클래스를 꾸미는 등 IT 교실 봉사활동을, 그 외에도 과학교실, 학교벽화, 벽면 및 책상 보수 등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건설공제조합, 인도네시아 초등학교 지원 협약

건설공제조합이 인도네시아 초등학교 지원을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누사텡가라 지역에 3개의 교실을 신축하고 교내 시설 유지 및 보수에 힘을 모아 어린이들의 초등교육을 위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KDB대우증권, 세이프 스쿨(Safe School) 지원

KDB대우증권은 코이카와 함께 재해재난에 취약한 지역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세이프 스쿨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세이프 스쿨 지원 사업은 학교를 개·보수하고, 학생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재난 대비 교육을 시행합니다. 또한, 도서실 구축 및 도서관리 교육 지원 등의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겨울에는 임직원들이 세이프 스쿨을 방문해 어린이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돌아왔습니다.



Event 특별행사

다양한 이벤트와 행사를 통해 후원자님을 만났습니다.



1



2



3



4

1 아디다스 한강마라톤 참여

3월 30일 미사리 조정경기장에서 진행된 아디다스 MBC 한강마라톤에 플랜코리아가 후원자와 함께 참여했습니다. 마라톤에 참여한 플랜코리아 후원자들은 지구촌 아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붙이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구촌 아이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희망이 전달되기를 소망하며 힘차게 달렸습니다. 플랜코리아는 홍보 부스를 마련해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하고, 마라톤 이후에는 후원자모임을 개최해 후원자들과 다채로운 이벤트를 함께 했습니다.

2 Go Donate! 2PM 서울콘서트에서 기부 부스 운영

10월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PM 콘서트에 플랜코리아가 기부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기부 물품 접수 및 아동결연 신청, 남은 외화 및 한화 후원 등 다양한 기부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팬들이 전해준 기부 물품은 2PM 월드 투어가 진행되는 국가의 어린이들에게 전달하고, 모금된 외화 및 한화는 어린이들의 권리 신장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3 음악과 나눔이 함께하는 Grand Mint Festival 참여

깊어가는 가을,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는 감성 페스티벌,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에 올해도 플랜코리아가 함께했습니다. 여자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지지하는 Raise Your Hand 캠페인과 즉석 사진 이벤트, SNS 참여 이벤트, 나눔팔찌 판매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플랜코리아를 알렸습니다.

4 따뜻한 연말, 블랑블루 호텔 아트페어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서울 장충동 그랜드 엔버서더에서 제3회 블랑블루 호텔 아트페어가 열렸습니다. 입장료 및 도록 판매 등 전시 수익금은 플랜코리아에 기부돼 전 세계 어린이들의 빈곤 퇴치 및 권리 보장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플랜코리아 후원자에게는 무료 관람의 기회가 돌아가 더욱 성공한 연말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Sponsor 후원자 참여

후원자님의 다양한 참여와 소통으로 풍성했습니다.



1 후원자와 함께하는 The 좋은 여행

여섯 번째 후원자 여행 'The 좋은 여행'이 8월 11일부터 16일까지 4박 6일간, 베트남 광경아이 지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0여 명의 후원자와 가족들이 참여해 플랜의 활동 모습을 직접 보고 플랜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방문 지역에 식수대를 선물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여행에는 여행 직전 공모한 후원자 스토리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후원자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2 2014 플랜코리아 후원자 어워드 개최

2014년 한 해 동안 플랜코리아를 사랑해주시던 후원자 중 특별한 이야기를 지니고 계신 분들과 함께 플랜코리아 후원자 어워드를 개최했습니다. The 좋은 후원상, 다다익선상, 서신교류상, The 좋은 가족상, 특별상, The 좋은 여행자상, 자원봉사상, The 좋은 파트너상을 수여하며, 플랜코리아를 사랑해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3 대원외고 학생들이 직접 만든 불어 동화책 전달

대원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만든 불어 동화책을 플랜코리아에 전달했습니다. 교과 과목 외 좀 더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싶어 시작한 동화책 만들기 작업은 기획부터 스토리, 불어 및 영어 번역, 일러스트, 책 제작비 마련까지 모두 학생들의 힘으로 이루어냈습니다. 의미 있는 이 동화책은 아프리카 말리의 초등학교에 전달되었습니다.

4 선배에서 후배로, 건국고등학교 우물 건립 후원

건국고등학교는 2011년부터 매년 '더불어 사는 사회' 프로젝트를 진행해 학생들이 모금한 후원금으로 플랜코리아를 통해 캄보디아 우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씨엠립 지역은 비위생적인 식수와 위생 환경으로 3~5세 아이들의 수인성 전염병 감염률이 높은 곳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깨끗한 식수를 확보하고, 지역 내 식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올해도 우물을 선물했습니다.

5 플랜코리아 대학생 봉사단, 플랜클럽

나눔으로 청춘을 플랜하자! 플랜코리아의 대학생 봉사단인 플랜클럽이 2014년 한 해 동안 다양한 캠페인으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가천대학교 축제 참여, 대학로 거리캠페인, 홍대 거리캠페인 등 다양한 장소에서 개발도상국 여자아이들의 인권 신장을 위한 Because I am a Girl 캠페인을 펼치며, 시민들과 함께했습니다.



Campaign 캠페인

지구촌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으로 시민들을 찾아갔습니다.



1 아프리카의 꿈 캠페인

에버랜드와 함께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꿈을 응원하고 우물 건립을 지원하기 위한 아프리카의 꿈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로스트밸리 생명나무 옆 플랜코리아의 생명의 우물 모금함을 설치하고, 아프리카의 물 부족 실상을 알리기 위한 사진전시, 아프리카 체험을 비롯해 다양한 부대행사를 펼쳤습니다. 오상진 홍보대사, 걸스데이 유라도 함께 참여해 캠페인을 응원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금액은 아프리카 우물 건립에 사용되었습니다.



2 아동노동 반대 캠페인

6월 12일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을 맞아 닐슨코리아와 함께 아동노동 반대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아동노동을 극복하고 인권 신장을 돋기 위한 닐슨 임직원 애장품 경매와 나눔 바자회, 펠트 축구공 만들기, 여자아이들의 인권 신장을 위한 핑크레모네이드 판매 등 다양한 캠페인과 이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애장품 경매에는 오상진 홍보대사가 함께해 열기를 더했습니다.



3 소원을 말해봐, 별빛요정 소원의 샘물 캠페인

에버랜드 장미원에 별빛요정 소원의 샘물을 설치하고 개발도상국 여자아이 지원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Because I am a Girl 캠페인의 일환으로, 소원의 샘물 분수에 소원을 담아 동전을 던져 모금된 금액은 개발도상국 여자아이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 그들의 소원도 함께 이루어지는 의미를 담은 캠페인입니다. 오상진 홍보대사와 걸스데이가 캠페인의 시작을, 백진희 홍보대사가 캠페인의 끝을 함께하며 캠페인을 응원해주었습니다.



4 출발 드림팀과 함께하는 희망의 승부차기

지구촌을 뜨겁게 달군 2014 브라질 월드컵의 열기를 이어 KBS 출발 드림팀과 함께 중남미 축구 꿈나무 지원을 위한 '희망의 승부차기'를 진행했습니다. 플랜코리아 홍보대사인 이운재 선수와 후원자가 함께 게임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게임을 통해 중남미 어린이들에게 축구공 1,200개를 전달해 그들의 꿈을 지지했습니다.



5 걸스데이와 함께한 출생등록 캠페인

콘서트 수익금 전액을 플랜코리아에 기부해 화제가 되었던 걸스데이의 첫 단독 콘서트에서 플랜의 출생등록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콘서트에 맞춰 출생등록이 되지 않아 기본적인 보호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출생등록 캠페인을 알리는 다양한 부대 행사와 모금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수익금과 모금액은 태국 여자아이들의 출생등록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6 Raise Your Hand!

여자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지지한다면 손을 높이 들어주세요! Raise Your Hand 캠페인은 여자아이들의 교육권을 지지한다는 뜻을 담아 손을 들고 사진을 찍어 UN에 제출하는 청원 운동입니다. 2014년에도 다양한 플랜코리아 행사에서 Raise Your Hand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전 세계적으로 2만 3천명 이상이 여자아이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 캠페인에 참여하였습니다.

Plan People 홍보대사

홍보대사 여러분도 플랜코리아와 함께
지구촌 아이들을 응원했습니다.



Girl's Day 걸스데이

태국 소수민족 여자아이들에게
출생등록을 선물해요!

걸스데이 홍보대사가 방문한 태국 북부의 반 노엘 마을의 인구 1,224명 중 850명이 무국적 상태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출생등록이 되지 않으면 교육, 보건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걸스데이는 4명의 여자아이들을 만나 직접 이 아이들의 출생등록을 도와주며 플랜의 출생등록 캠페인(Count Every Child)에 동참했습니다.

이에 앞서 첫 단독콘서트의 수익금 전액을 플랜코리아에 기부해 팬들과 함께 태국 여자아이들의 출생등록을 지원하였습니다. 콘서트 당일 플랜코리아는 현장에 홍보 부스를 마련해 출생등록 캠페인을 소개하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Song Jae-lim 송재림

함께 꿈꾸는
Dream Village

송재림 홍보대사가 캄보디아에 방문해 후원아동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후원아동의 집 외벽을 수리하고, 후원아동이 다니는 학교에 팬들이 준비해준 문구 용품을 전달하고 학생들을 위한 위생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송재림이 꿈꾸는 마을, 깨끗한 식수를 마실 수 있고 어린이들이 아플 때 치료를 받고 어린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교육을 받는 마을입니다. 이번 방문에서 송재림은 마을의 전반적인 식수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우물 건립을 약속했습니다.

캄보디아 방문 후 송재림 홍보대사는 ‘송재림의 Dream Village’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결연을 비롯해 개발도상국의 지역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캠페인으로 송재림 홍보대사가 직접 기획하고 펀드레이저가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Baek Jin-hee 백진희

재해재난에 취약한 그곳에 세이프스쿨이 있습니다.

백진희 홍보대사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했습니다. 재해재난에 취약한 지역, 특히 쓰레기 마을로 불리는 타라메라 마을을 방문해 상습 침수와 가난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만나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주었습니다. 플랜의 지원으로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세이프 스쿨 프로그램도 돌아보며,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다짐하고 돌아왔습니다.

한편, 여자아이들의 인권 신장을 위한 캠페인 Because I am a Girl의 일환으로 진행된 별빛요정 소원의 샘물 캠페인에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여자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한 Raise Your Hand 참여는 물론 페이스페인팅, 희망동전 붙이기 등 캠페인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캠페인을 알리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Jeon Mi-seon 전미선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
함께 해주세요!

전미선 홍보대사는 태국의 고립된 소수민족 아이들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ECCD 센터(영유아보육시설) 건립을 지원하고, 완공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방문에 앞서 HSBC 코리아에서 ECCD 센터 지원에 대해 소개하고, 임직원이 직접 만든 유치원 교구를 전달받아 ECCD센터 내 아이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전미선 홍보대사는 삼성전자 임직원을 대상으로 나눔에 대한 강연을 진행해 더 많은 사람들이 플랜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독려했습니다.



Shin Soo-ji 신수지
건강하게 자라기를!

신수지 홍보대사가 후원아동을 만나기 위해 캄보디아 씨엠립을 방문했습니다. 씨엠립 지역 2명의 아이를 후원하고 있는 신수지 홍보대사는 아이들을 만나 평소 궁금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며, 후원아동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플랜이 지원하는 학교에 찾아가 플랜의 활동을 돌아보고, 아이들에게 건강 체조를 알려주며 건강하게 지내기를 당부하고 돌아왔습니다.



Oh Sang-jin 오상진
우리는 인연을 만듭니다.

결연을 맺은 아동과의 소중한 인연을 알려주는 플랜코리아 캠페인 '우리는 인연을 만듭니다'에 오상진 홍보대사가 목소리를 기부해 사람들의 참여와 후원을 독려했습니다. 또한 아동노동을 반대하는 닐슨코리아의 임팩트 데이에서 나눔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지구촌 여자아이들을 위한 별빛요정 소원의 샘물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지구촌 아이들을 응원했습니다.

미얀마

ECCD센터 건립 및 지역사회 역량 강화
Community Based- Early Childhood Care & Development



- 지 역** 미얀마 아예와디(Ayeyarwaddy) 지역 보갈리(Bogale) 군 &
라카인(Rakhine) 주 당곡(Toungup) 구
- 기 간** 2013년 7월 1일 ~ 2016년 6월 30일 (3년)
- 수혜자** 직접: 5세 미만 유아 2,340명 (남 1,124명 / 여 1,216명) 및 학부모,
지역사회 리더, 센터 교사 등 3,990명
간접: 지역사회 주민 2,600명

플랜코리아는 미얀마 수도에서 5시간 이상 떨어져 있는 보갈리 군의 6개 마을과 당곡 구 15개 벽촌 마을 거주 어린이들을 위해 ECCD센터 건립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미얀마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미얀마 내 NGO 단체인 메타 개발 재단(Metta Development Foundation) 및 인쓰와이 재단(Yinthway Foundation)과 함께 하고 있으며, 쓰나미나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마을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2014년 한 해 동안에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① ECCD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 ② ECCD센터 교사와 보조 교사의 수업 연수
- ③ 13개 ECCD센터 신축 및 개보수 진행
- ④ 신축 및 개보수된 ECCD센터에 학습교재 제공
- ⑤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양육 및 부모교육 진행
- ⑥ 어린이와 부모를 대상으로 유치원 교구 만들기 진행
- ⑦ ECCD센터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으로 5세 미만 유아의 입학 및 이용



라오스

어린이 교육 지원 프로젝트
Basic Education Project (BEP) Programme



- 지 역** 라오스 우둠싸이(Oudomxay) 주 호운(Houn) 및 빠뱅(Pakbeng) 구역
- 기 간** 2013년 7월 ~ 2017년 3월(약 4년)
- 수혜자** 직접: 호운(Houn) 및 빠뱅(Pakbeng) 구역 내 100여 개 마을 거주 어린이
간접: 마을 주민과 학교 교사

우둠싸이 주의 호운과 빠�� 행정구는 빈곤 가정의 비율이 각각 65%와 85%에 달하는 빈곤한 지역입니다. 이곳의 어린이들은 제대로 된 교육환경을 접하기 힘들며, 대다수가 소수민족으로 언어 사용 및 권리 보장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랜코리아는 이곳 어린이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① 교육의 중요성 등 마을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연극 및 게임 진행
- ② 교육 및 아동 권리 보장에 대해 소수민족의 언어로 진행되는 라디오 프로그램 구성
- ③ 연 1회 학교 및 마을을 대상으로 '어린이의 날' 행사 진행



캄보디아

중학교 건립 및 미술 활동 지원

LSS Construction & Fine Art Project



지 역 씨엠립(Siem Reap) 주 반테이 스레이(Banteay Srei) 지역
룬 타엑(Run Taek) 마을 및 차 축(Cha Chhuk) 마을

기 간 2014년 8월~2016년 12월(16개월)

수혜자 직접: 룬 타엑 마을과 인근 마을의 400여 명의 중학생
차 축 마을의 1천여 명의 청소년
간접: 마을 주민과 학교 교사

플랜코리아는 캄보디아 씨엠립의 룬 타엑 및 차 축 마을에서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중학교 건립(룬 타엑 마을)

- ① 6개 교실과 화장실 건축, 책걸상 지원
- ② 프로젝트 진행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위원회 설립

2. 미술 활동 지원(차 축 마을)

- ① 미술 도구 지원
- ② 미술 교사 2명 고용
- ③ 3년간 총 3회의 전시회 진행

현재는 관련된 행정 승인 절차를 마치고 마을 내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각종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학교 건축을 진행 중이며, 앞으로 미술 수업 개설 등 기술 및 재정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태국

소수민족 모肯족 어린이 교육 지원

Promoting Access to Education on Moken Children

지 역 태국 남부 안다만(Andaman) 연안 지방 내 팡은가(PhangNga) 주(州)

수린(Surin) 섬 팡은가(PhangNga) 섬 및 라농(Ranong) 주(州) 라오(Lao) 섬 일대

기 간 2013년 1월 ~ 2014년 1월(12개월)

수혜자 855명의 모肯족 어린이와 지역주민

태국 남부와 미얀마의 국경인 안다만 해에 거주하고 있는 바다집시족 모肯족은 총 인구 약 3천 명으로 추정됩니다. 열악한 수준의 교육과 보건·위생, 생계활동은 모肯족 대부분을 절대빈곤 상태로 내몰고 있습니다. 적절한 교육 시설이 부족하고, 부모들은 아동 교육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태입니다.

플랜코리아는 모肯족의 사회적 자립과 적응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의 권리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펼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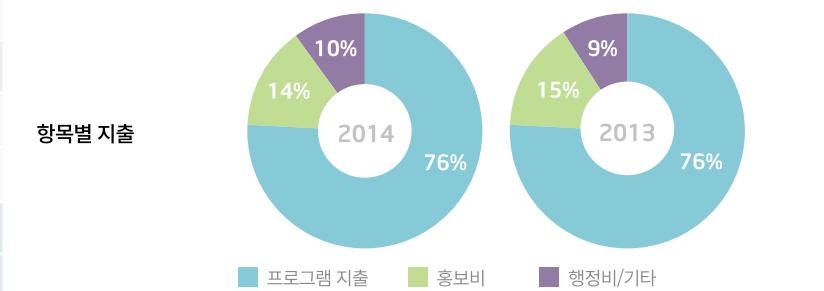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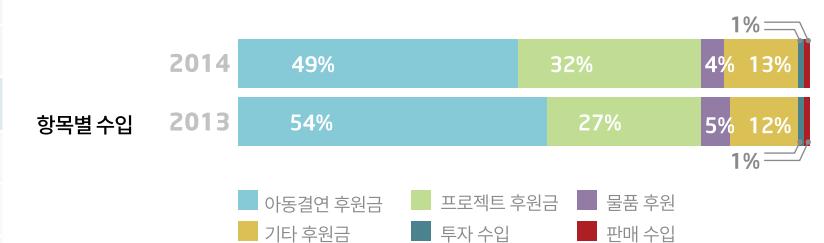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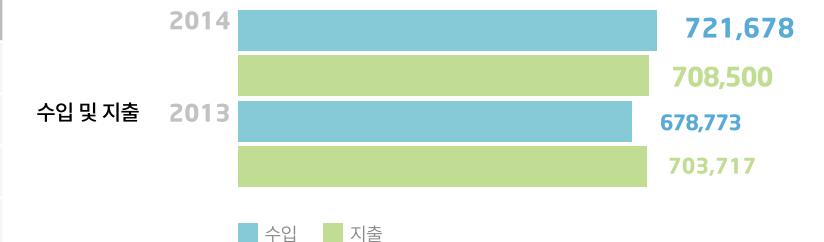
- ① 마을 도서관 건립 및 도서, 교육자재 제공
- ② 아동과 학부모 대상의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
- ③ 마을과 학교에 모터보트 및 통신기기 제공



플랜인터내셔널 재정보고

플랜인터내셔널 월드와이드 연결 수입 및 지출 보고서 (2014.6.30 기준 / 단위: 천 유로)

구분	항목	2014	2013
수입	아동결연 후원금	354,262	368,613
	프로젝트 후원금	231,665	184,347
	물품 후원	30,462	35,554
	기타 후원금	97,301	83,071
	투자 수입	3,083	1,794
	판매 수입	4,905	5,394
수입계		721,678	678,773
지출	프로그램 지출	지역개발 사업비	301,344
		아동권리 교육/보호	104,491
		스폰서십 프로그램 지원	38,901
	프로그램 지출계	재난위기관리 및 긴급구호	91,214
		535,950	534,846
	홍보비	100,476	102,481
지출계		708,500	703,717
차기 이월		13,178	-24,9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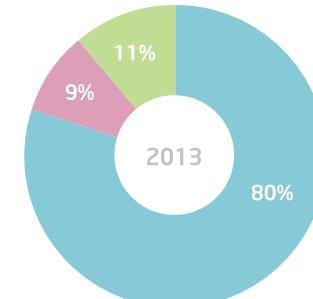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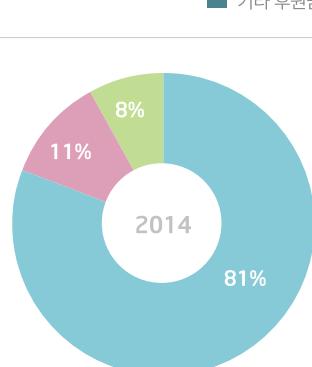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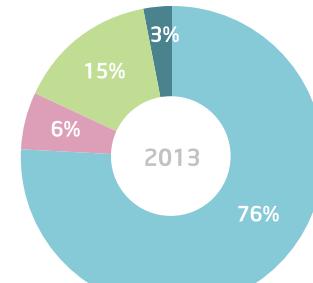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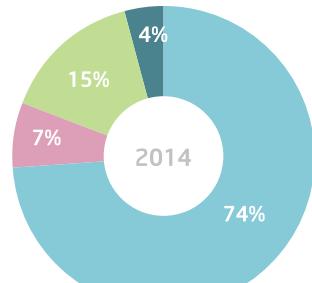


플랜코리아 재정보고

플랜코리아 수입 및 지출 보고서

(2014.6.30 기준 / 단위: 천 원)

구분	항목	2014	2013
수입	아동결연 후원금	10,923,422	9,704,975
	정부 및 기관 프로젝트 후원금	970,141	688,659
	기업 및 개인 프로젝트 후원금	2,250,130	1,916,362
	기타 후원금	567,837	421,565
수입계		14,711,530	12,731,561
지출	프로그램 지출	지역개발 사업비	11,348,346
		아동권리 옹호사업비	97,715
		지역개발 교육비	379,896
		프로그램 지원비	143,408
	프로그램 지출계	11,969,365	10,135,613
	홍보비	1,544,265	1,145,995
	행정비/기타	1,197,900	1,449,953
지출계		14,711,530	12,731,561



플랜인터내셔널의 2014년

과테말라

2014년 울리히 비커트(Ulrich Wickert) 아동권리특별상이 플랜과테말라의 청년 미디어 프로젝트인 라디오 포콜라(Radio Pocola)에 주어졌습니다. 소녀와 소년, 토착주민이 라디오를 통해 수백만 가정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엘살바도르

플랜엘살바도르는 글로리아 드 크리테 기구(Gloria de Kriete Foundation)의 연례 시상식에서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청년들의 꿈 유통 후원 프로젝트는 혁신적인 접근 방법을 인정받아 특별상을 탔고 39,000 유로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태평양 연안 국가

플랜호주가 6개의 태평양 연안 섬들에서 진행한 '4CA 아동중 심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이 처음 개최된 '회복을 위한 태평양 혁신 및 리더쉽 어워드(Pacific Innovation and Leadership Awards for Resilience)'에서 수상자 3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상은 유엔 재난위험 감소 사무국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서부 아프리카

플랜은 서부 아프리카 룰백 말라리아 네트워크 어워드 (Roll Back Malaria Network award)에서 비정부기 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플랜은 서부 아프리카 12개 국가에 1,900만 개의 모기장을 나누어 주었고 28,000명의 커뮤니티 활동가들과 3,800 커뮤니티 보건소 직원들을 교육했습니다. 룰백 말라리아는 500개 기구와 정부기관 들의 글로벌 협력단체입니다.

말리

말리의 여성복지부는 여성할례를 줄이는데 영향을 미친 플랜의 노고를 인정해 플랜말리에 상을 수여했습니다. 45개 지역 대표자들이 이 행사에 참여해 여성할례 철폐를 지지했습니다.



INTERNAT

Guatemala

Mali

El Salvador

WEST AF

PACIFIC ISLANDS



인터내셔널

플랜의 단편영화 [I'll take It From Here]가 유니세프 안시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에서 입상하였습니다. 이 영화는 여자아이들의 교육권에 대한 내용으로 말라위에서 촬영되었으며, 12개 언어로 번역되어 25개 나라에서 상영되었습니다.

TIONAL



우간다

우간다 책임투자어워드(Uganda Responsible Investment Award)에서 우간다의 요웨리 뮤스베니 (Yoweri Museveni) 대통령이 플랜우간다를 최고의 아동개발기구로 명명하여상을 수여했습니다. 이는 밀레니엄 개발목표의 성취에 대한 플랜의 공헌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뮤스베니 대통령은 또한 플랜을 책임감 있는 파트너로 꼽았습니다.



태국

플랜태국의 금융 프로젝트가 푸르덴셜 회장 도전상(Prudential Chairman's Challenge)을 수상하였습니다. 180명의 푸르덴셜 자원봉사자들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경제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3년 동안 4,500명의 청소년들이 경제적 기술과 지식을 얻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플랜인도네시아에서 진행하는 지역사회 주도의 위생 프로젝트가 인도네시아 정부의 MDG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상은 2010년부터 그들 스스로 위생설비를 건설하도록 지역사회를 돋고 수준 높은 위생상태로 이끈 플랜의 노고를 인정해준 것입니다.



캄보디아

플랜캄보디아는 캄퐁찰 지역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는 점을 인정받아 캄보디아 교육부의 임 코치(Im Koch)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금메달을 수여받았습니다. 플랜은 인구가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캄퐁찰 지역에서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아시아

두 명의 플랜의 청소년 홍보대사들이 글로벌 교육 유엔 특사 고든 브라운(Gordon Brown)으로부터 청년 용기상(Youth Courage Awards)을 수상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18세 케슬 로이는 플랜 어린이 기구의 회장으로 여자아이들의 교육과 조혼 방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가정 노예로 지낸 우르밀라 초하리는 네팔에서 행해지는 아동 노예제도인 카말라리 시스템을 폐지하기 위한 플랜의 캠페인에서 중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Plan

지구촌 아이들의 꿈, 플랜코리아가 함께 합니다.



w

www.plankorea.or.kr



facebook.com/plank.kr



twitter.com/plankorea

463-4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1 H스퀘어 S동 912호 | Tel 02.790.5436 | Fax 02.790.5416
912, S Block, H Square, 231, Pangyo-yeok-ro,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463-400